

□ 회 의 록

[사회자 : 관광정책담당]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입니다.
- 바쁘신 와중에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석하신 위원님에 대한 소개, 위원 분들에 대한 위촉장 전수 후 위원장이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이어서, 오늘 심의위원회 안건인 2015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용자 지원(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2015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오늘 위원님들 소개에 앞서서 지난 1. 29일자로 새로 취임하신 ○○○ 행정부지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행정부지사]

- 네, 반갑습니다.

[사회자 : 관광정책담당]

- 이어서 지난 1월 15일자로 부임한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자 관광진흥기금 부위원장이신 ○○○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 간사이신 ○○○ 관광정책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 이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도의회 ○○○ 위원님이십니다.
 - 제주대학교 ○○○학과 ○○○ 님이십니다.
 - ○○○님이십니다.
 - ○○○님이십니다.
 - ○○○님이십니다.
- 그러면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위촉장을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촉직 위원은 총 여섯 분으로 연임 위원 세 분과 신규 위원 세 분이 위촉되십니다.
 - 위촉장,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님, 귀하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5년

2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위촉장, 제주대학교 ○○○학과 교수 ○○○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 위촉장, ○○○회 ○○○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 위촉장, ○○○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 위촉장, ○○○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 이상으로 위촉장 수여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행정부지사]

- 네, 반갑습니다. 제가 도에 온지 열흘 조금 넘었습니다. 와보니깐 여러 가지 위원회도 많고 아직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정신이 없습니다마는,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제가 와서 제주도 제일 유명한 게 굴이잖습니까. 먹어보니깐 육지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이 있는 거 같습니다. 굴이라든지 겨울채소가 또 유명하다고 들었고, 또 요즘 넙치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내려서 여러 가지 어민 분들이 고생도 많습시다만, 이런 굴이라든지 겨울 채소, 넙치 이런 게 소득작물로 되었습니다마는 역시 제주도는 뭐니뭐니해도 관광산업이 어떤 산업보다 중요한

산업인 것 같습니다.

- 작년 통계를 보니 작년 입도 관광객 수가 1200만명을 훨씬 넘어섰고, 그중 외국인 관광객이 330만명을 넘은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제도시 뭐 이런 명칭을 쪽 써왔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국제적 관광도시가 된 거 같습니다.
- 관광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관광진흥기금 확충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재원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있는데 카지노 납부금하고 출국 납부금 두 가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카지노 납부금이 174억원 정도 되고, 출국 납부금이 아마 도에서 외국으로 가는 경우에 만원 정도 출국 납부금을 내는 것이 도 재원으로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8억원 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금들이 관광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주관광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는 선순환적인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금운용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관광정책담당]

- 위원장님께서서는 다른 급한 일정으로 부득이 자리를 함께 하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퇴장)

- 그러면, 나누어 드린 심의자료에 의거해서 부위원장이신 ○○○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 네 ○○○입니다. 저도 새로워서 일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들 잘 소통하면서 일을 열심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오늘 두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2015년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용자 지원 규모 조정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관광진흥기금 용자 지원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안건인데, 먼저 첫 번째 안건인 2015년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용자지원규모 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심의안건에 대해서 관광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 관광정책과장]

- 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입니다.

- 그러면 오늘 심의안건 두 건 중에 먼저 2015년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용자지원규모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결주문은 2015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용자 지원 규모 조정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5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용자신청서를 접수하고 용자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산정한 결과, 당초 90,000억원대 규모를 91,750백만원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도민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 주요한 내용은 기금신청은 전체 110개소에 268,708백만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용자지원규모는 91,750백만원으로서 시설 분야에 86,430백만원 운영자금 분야에 5,3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기준으로는 5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비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 자금의 경우, 공사 금액별로 자금 지원율을 차등 적용하였는데, 20억 미만인 경우는 50%,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40%, 50억 이상인 경우는 30%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그렇게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들]

○ 네

[부위원장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 의사 결정 1안 2015년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용자지원 규모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2015년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용자 지원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관광정책과장님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관광정책과장]

- 네, 회의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용자지원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결주문은 2015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용자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제안이유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5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용자 신청에 대한 지원안을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2015년 상반기 용자지원 신청은 총 110개소에 268,708백만원이 신청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은 110개소에 91,750백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관광진흥기금 용자지원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원기준은 관광사업체 운영 및 일반 숙박업 개보수, 시설자금 중에 5억 미만인 경우는 영세한 도민사업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영세사업체 지원율을 높이고자 공사 금액별로 지원율을 차등 적용하였고, 금회 신청자 중에 기 용자지원을 받는 업체 11개소에 대하여는 신규 신청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부지원율의 85%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용자지원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자 지원액 하한선을 신청액의 20%로 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른 산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액 산정근거는 본인의 신청액과 ○○○○○○협회 검토 조정액, 그리고 도 ○○○협회가 산출한 업종별 건설기준단가 중에서 제일 낮은 금액을 지원기준으로 책정하여서 지원율을 산정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업종별 건설기준단가와 공사금액별 세부지원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은 지원안입니다.
- 일반 숙박업 개보수 및 운영자금은 전체 5,320백만원으로서 신청액 대비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시설자금은 86,430백만원으로 신청액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평균 32.8%, 용자지원 기준액을 대비했을 때는, 36.1%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시설자금 지원율과 사업별 지원 대상자 및 지원규모는 지금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지원기준이나 지원액 산출 근거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을 먼저 질의를 하시면 저희 실무진들이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전년대비 지원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 사 : 관광정책과장]

- 그 부분은 7쪽에 아래쪽을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해에는 2014년도 1사분기에는 평균 한 32%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32.9%, 지난 해 대비 큰 폭의 차이는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 위원]

- 숙박시설 개보수 비용은 지원을 해도 관찮을 거 같은데 신규 건설하는 호텔이나 숙박업소에는 너무 과다 지원해주는 그런 경향이 많은 거 같습니다.

[간 사 : 관광정책과장]

- 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숙박시설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를 운영할

때 갑자기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안하겠다 해버리면 몇 년씩 사업구상을 해 오신 분들께는 상당한 착오를 빚게 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올해는 지원 금액을 줄였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면서 점차 줄이고 나중에는 숙박시설이 제주도에 어느 정도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은 앞으로 중단하는 거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중단하는 것은 결정은 안했습니다. 다만, 조금씩 줄여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줄여서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고 차후에 중단 여부는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이것을 확 중단하는 것보다는 액수를 줄여서 과다 건축을 안 하는 데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도에서 해주기 위해서라도 지원금을 신축 호텔, 숙박업소에 한해서는 제한을 두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간 사 : 관광정책과장]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 지금 신청한 기업이 110개소인데 지원한 업소가 또 규모가 110개소예요.
-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을 다 해주는 건지... 평가기준이 있어서 어떤 업체는 되고 어떤 업체는 안되고 하는

세부평가기준이 있나요?

110개소 신청을 받아서 110개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평가기준이 뭔가요? 용자를 해주는 평가기준이 있나 해서요.

[간 사 : 관광정책과장]

- 이 부분은 접수를 할 때 대상자가 되지 않는 업체가 3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5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시는 분이 2건, 자본금 초과가 1건이 있어서 3건은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자격요건이 되는 데는 전부 신청을 받아서 용자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데를 지원 폭을 완전히 배제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일단 신청이 되면 걱정하게 전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이 지원 전에 결정을 하기 전에 해당업체에 감사를 나가시는 것인지 서류 신청만 받고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간 사 : 관광정책과장]

- 현장검사는 없습니다. 서류심사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결국은 여기서 지원이 확정되더라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엄정한 절차나 기준에 따라서 대출지원이 되면은 그런 기준이 다 갖춰지는 것입니다.
- 금융기관에서 2차 확인, 점검 요런 부분까지 되니깐.... 여기서 된다고 해서 다 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 110개소 신청했는데 110개소 지원이 된다고 하면.....뭔가 걸려져야 할 거 같긴 한데.....

[부위원장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 저희들이 새로운 위원도 오고해서 이 제도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드려야 옳을 거 같은데 그렇게 잘 못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제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써보자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을 따로 모시고 제도에 대한 설명, 앞으로 방향에 대한 것은 꼭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같이 의논하고 연구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차보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선정해서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에서 일반적인 대출조건에 맞는가, 맞는

분에 한해서 해주고 이자 중에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보전을 해주는.....

- 지원기준이나 지원액 산출근거에 대해서 혹시 더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 기준대로 하면 이제 뒤에 있는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이 그대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두 번째 안 전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대상이 어떻게 구분이 되죠?

[간 사 : 관광정책과장]

-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것은 관광진흥기금 조례에 따라서 관광숙박시설, 국민관광시설 건설 또는 개보수 하는 것, 관광사업체 운영, 이 부분은 중앙부처 관광진흥기금과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일반 숙박업에 확대를 좀 했습니다.
- 일반 숙박시설을 포함해서 본인 신청하게 되면 지금 제주도에 주소지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최근 3개월 이상, 그리고 자본금이 50억 이상인 사업체는 일단 제외대상이 되구요, 나머지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신청 대상이 전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 관광사업체는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간 사 : 관광정책과장]

○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포함되어 있는 관광호텔이라든지 아니면 관광호스텔...그 다음에...

[○○○ 위원]

○ 숙박업 말고...다른 관광사업체라 하면 제조업도 포함됩니까?

[간 사 : 관광정책과장]

○ 제조업은 지금 포함이 안됩니다.

[○○○ 위원]

○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간 사 : 관광정책과장]

○ 일단은 우리 조례에 보면 관광시설하고 국민관광시설, 관광시설업에 대해서....

[○○○ 위원]

○ 관광상품 제조하는데는 해당이 안되겠네요?

[간 사 : 관광정책과장]

- 상품제조하는 것을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31가지입니다. 31가지를 말씀드리면, 여행업, 숙박업, 물론 숙박업에는 콘도미니엄이 포함하겠습니다. 종합휴양업, 자동차대여업, 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회의시설업,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관광식당, 휴양펜션,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면세점, 농원, 유어장, 기념품개발지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관광기념품 개발 지원사업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

- 한번 알아보시고, 보니까 숙박업에 치중이 되었네요. 전체에서 몇 프로가 숙박업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전체에서 숙박업에 지원되는 비율이 몇 프로되고 있습니까?

[간 사 : 관광정책과장]

- 금액상으로만 말씀드리면 원래 숙박업이 자금이 많이 투자되는 분야여서, 금액상으로 말씀드리면 한 90%정도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 호텔 숙박업이 과잉 공급이 아닌가, 사실 중국 관광객이

언젠가 좀 뜸해져서 감소가 됐을 경우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숙박업에 너무 많이 하는 거보다도 일반 관광사업체 육성에 지원을 해줘야 할 게 아닌가.....

[부위원장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 네, 좋으신 의견인거 같습니다.

[간 사 : 관광정책과장]

○ 아까 국장님 말씀이 있었습시다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위원님들하고 검토한 내용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운용방향에 대해서 한번 더 의논을 드리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어려운 사업체가 많거든요. 담보능력도 조금 부족하고...그것을 은행에서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담보를 해버리면은...담보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영세사업자들 담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 위원]

○ 저도 왔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가 한 3~4년 전에 똑같은 위원으로 참여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도 보니까 관광시설자금에, 그 때도 마찬가지로 호텔이라

든지 펜션 요런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왔고 운영 자금도 일부 좀 있었지만, 요즘 와보니 관광 자동차, 버스도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용자추천을 받고 심의해 버리면 끝납니다. 그 대신 이차보전, 돈만 지급해 버리면 끝나는데 최종 리스크는 금융기관이 부담합니다. 호텔에다가 20억 지원하는데, 여기서 의결났더라도 ○○○님 말씀하셨지만 은행에서 안돼 하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 제가 염려되는 건 3, 4년전에는 요거 심의받기 위해서 해당업체에서 관광과로 금융기관 용자확인추천서를 첨부하는진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게 없어버리니까, 이제 계속 내려가도 대출이 30~40%밖에 안 되는 겁니다.
- 요즘은 사전에 업체에 금융기관가서 합의를 받아와라 하고 있는 거 같긴 합니다. 여기서 결정되면은...여기서 한번 걸러진 거 요걸로 보면 될 거 같구요,
- 저도 아까 ○○○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언론에 제주도내 숙박업소가 포화상태 아니냐 이게 참 염려됩니다. 시내 돌아다니다보면 거의 다 호텔만 짓고 있어서 어떻게 될건가 앞으로 1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가, 저희들이 한번 당한 게 있습니다. IMF가 97년에 있었고 리먼사태가 2008년도에 있어갖고 제주도 해안도로에 펜션들이 대출금 이자를 못 내갖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애물단지였거든요. 누가 사지도 않고.... 최근에 보면 이게 효자산업입니다. 펜션이 너무 장사가 잘되갖고 매매도 이제 팔겠다는 사람도 없고 이자 잘내지 원금 잘내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또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포화 상태여서 장사가 안 되다 보면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염려가 생각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한 말씀 드리면,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자라든가,
지원규모라든가 확정이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사전에
걸러지기는 하는데 하다보면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결국 왜 대출 안 해주느냐
하는데...과거와 달리 오늘 자료를 보면 사업기간, 신청액,
지원액, 기준액 이렇게 나와 있어서 실제 이 업체에서 이런
막대한 인프라를 하는데 자기자본이 얼마정도 투입되고
금융기관 차입이 얼마를 해서 지원을 해 줄건지가 정해져야
되는데, 여기에만 보면 도에서 만든 이 안을 위원회에서
무조건 그냥 제대로 업체를 보지 않고 통과시켜야 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과거 같은 경우,
자기자본의 비중, 자기자본이 얼마나 투입해야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데, 자기자본이 적고
금융기관 부채가 많으면 안되면 포기해버립니다.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신청 하는
걸 좀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부위원장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 네 어쨌든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좋으신 의견이신 거 같고 다만 자기자본비율을 결국은 마지막 자기 사업을 진행해봐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확인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등등 이런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관광진흥기금 토론하는 과정에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같이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

-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관광호텔들이 작년에 거의 90% 이상 영업이 됐습니다. 올해 30~25%로 떨어졌어요.
제가 도에다 바라고 싶은 것은 호텔을 지어서 영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민주주의 국가니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도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숙박시설 공급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숙박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더 줄이시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 개보수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은 지원은 더 해주시더라도 그런 것을 조정해 주시는게 더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 위원회가 방향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숙박업보다는 지자체에서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몇 번 실사를 갔다왔는데 자금을 못 마련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더라구요. 특히 해안가라든가

마을 주민들이 공동사업을 하는데 해봤자 관광공사에서 3천만원 5천만원 이걸 갖고 어떻게 지원을 받아보려고 PT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 이런 숙박업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제주도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자체 마을 공동사업체를 대상으로 조금 더 용자의 조건을 좀 더 좋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전체적으로 좀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너무 숙박업으로 치중하다보면 그래서 돌아오는게 뭐냐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을 거 같긴 한데.....
- 장기적으로 제주문화상품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용자라든가 지원 관련 사업들을 홍보를 더 해주셨음 좋겠어요. 제도같은 것도 완화된...용자 지원 기준도 좀 더 완화해줬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부위원장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 도가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 위원님하고 상의하면서 저희들이 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관광진흥기금이기 때문에 관광진흥에 관련만 된다면 그런데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농어촌연계 관광진흥에 관련만 된다면 거의가 농어촌 관계로는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은 농어촌연계 굉장히 어려운 지원받고 우리도 성공한 사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각 마을마다 그런 상품을 개발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이 관광진흥에 관련이 된다면은 도에서도 그런 것도 충분히.....

[○○○ 위원]

- 아까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분 은행에서 오셨는데 회수하는 것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은행에서 안해줄거야.....

[○○○ 위원]

- 숙박업도 그렇고 박물관도 그렇고..... 돈 많은 사람들이 숙박업하고 박물관 짓는 거 아니에요, 특히 박물관은..... 그런 분들한테 막 지원해준단건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같아...

[○○○ 위원]

- ○○○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관광진흥기금이 아니라 농어촌진흥기금쪽으로 해서.....똑같이 이차보전으로 나가는데 아마 지금 업종을 관광업을 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넓게 짜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아마 사업성 부분들에 대한 명쾌하지 않으니까...

[○○○ 위원]

- 그런 거 다 신청이 될 텐데요 도에서 홍보를 좀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홍보를 기존과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수단으로 각 마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어촌들하고 연계해서 해보면 아주 가까운 예로 우리가 감귤따기 체험행사를 하거든요. 그건 정말 호응도가 200%예요, 200%. 제주도에 관광오시는 분들이...도에서 주문해갖고 ○○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200%예요. 그런 좋은 사업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쪽으로는 문제, 걸림돌도 좀 있고 그러죠. 도에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 그러면 두 번째 안건인 2015 상반기 용자지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금 운용, 그냥 용자 지원건만 아니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말씀을 주셨던 거 같습니다. 아까 약속을 드렸지마는 다음에 편하게 기금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서로 격의없게 논의할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안건 있으십니까.
없으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 관광정책담당]

○ 가결되었으므로 심의의결서 서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의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